

보도일시 (인터넷) 2023. 11. 22.(수) 11:00,
(지면) 2023. 11. 23.(목) 조간

배포 2023. 11. 22.(수) 06:00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의견 듣는다

- 해수부, 지자체·유관기관·관련 업계와 함께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 11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경남 통영시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지자체, 유관기관 및 관련 업계와 함께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연수회(워크숍)’를 진행한다.

*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 등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물질(껍질, 뼈 등)

2022년 7월부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 폐기물로 취급되었던 조개류의 껍데기(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의 껍데기)를 석회석 대체재, 의약품의 원료, 화장품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굴 껍데기를 원료로 한 자기, 세안제, 슬리퍼, 타일, 반려동물 영양제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면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번 연수회(워크숍)에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이라는 주제 아래, 수산부산물 재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정책 담당자 외에도 양식어업인, 수산부산물 처리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함께 이야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굴 껍데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 통영의 굴 양식어가와 재활용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만큼, 이번 연수회(워크숍)에서 더욱 의미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며,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책임자	과 장	강미숙 (044-200-5630)
		담당자	연구관	류지호 (044-200-5634)

참고

수산물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워크숍 계획(안)

□ 목적

- 「수산물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계기('22.7 시행), 일선 현장에서 법을 집행 중인 지자체 담당자와의 소통 필요성 증대
 - '24년 해양수산부 수산물부산물 정책추진 방향과 지자체 담당자 간 정보 교류, 현장(이해관계자, 업체)와의 소통 등을 위한 워크숍 필요

□ 개요

- 일시 : 2023. 11. 23. 14:00 ~ 11. 24. 13:00
- 장소 : 경남 통영 스탠포드 호텔 & 리조트(경남 통영시 도남로 347)
- 참석자 : 50명 이상
 - 지자체 공무원 및 한국어촌어항공단 : 30명 이상
 - 이해관계자(분리배출의무자, 처리업자) : 20명 이상
- 주요내용 : 지자체 현안 공유, 주요 현장 답사 및 특강 등

□ 주요 행사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1월 23일(목) - 1일차>			
13:40 ~ 14:00	20'	등록 및 일정 안내 등	<참석자> 해수부 지자체 업·단체
14:00 ~ 14:30	30'	주요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	
14:30 ~ 14:50	20'	'24년 정책추진 방향 소개	
14:50 ~ 15:00	10'	휴식	
15:00 ~ 16:20	80'	현장·업체 건의사항 청취	<참석자> 해수부 지자체
16:20 ~ 16:30	10'	휴식	
16:30 ~ 18:00	90'	해수부-지자체 업무협의	
<11월 24일(금) - 2일차>			
07:30 ~ 09:00	90'	조식	<참석자> 해수부 지자체
09:00 ~ 12:00	180'	수산물부산물 현장 견학	
12:00 ~ 13:00	'60	중식	
13:00 ~	-	해산	-

참고

수산부산물을 활용한 재활용 제품 사진



클렌징폼



설거지 비누



자기, 화병